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사상사업의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

김 충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문학예술 부문에서 먼저 당사상사업의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문학예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주체56(1967)년 5월 30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사상사업의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한점에서 불꽃을 일으켜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침체속에 빠져있는 사상사업을 추켜세우려고 결심하고 먼저 문학예술부문에서 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진행하는 좋은 경험을 창조하도록 하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447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방식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한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전반을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문학예술부문에서 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진행하는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문학예술이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옹계 수행하는가 수행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학습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체계를 세우는것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의 첫공정이며 출발점이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화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시기 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침투하는 사업이 잘되지 않고있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경우만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시간을 내시여 보아주시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지만 수령님의 교시를 예술인들속에 제때에 전달침투하는 체계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패를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화를 보시고 교시를 주시면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주체51(1962)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책임 일군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술영화 《새봄》을 보시고 주신 교시를 전달하시고 나서 아침에 창작가, 예술인들이 출근하면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할데 대하여서와 앞으로 촬영소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침투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울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사실 그때까지 촬영소에서 수많은 영화를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였으나 이렇게 교시원문을 그대로 제때에 전달받기는 처음이였다.

그 이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많은 영화를 보시고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원문그대로 제때에 전달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체계를 세우시던 나날에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는 사업은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제때에 교시원문을 가지고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것,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할 때 절대로 자기 말을 섞어서 전달하거나 자의로 고쳐서 전달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대장을 만들어놓고 제때에 교시전달침투정형과 집행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는것 등 교시전달과 총화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함께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교시를 전면적으로 학습하여 그 진수와 전반사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는 한편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김일성동지혁명력사도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학습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2시간이상 학습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매달 수령님의 로작 300페이지읽기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우도록 하는데도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주체56(1967)년 5월25일교시가 있는 직후인 5월 30일과 7월 3일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에게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여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문학예술건설과 작품창작에서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그릇된 사상의 침습을 막고 주체적문예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바로해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당면하여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속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꾸준히 정력적으로 벌리되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됨으로써 당사상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문학예술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집행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시는 한편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본보기로 꾸리고 그를 통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당시 일부 단위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접수하면 몇몇 일군들이 모여앉아 토론하는데 그치였다.

그런데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었다.

마동회동지를 형상한 영화를 만들 때만 하여도 창작가들은 영화창작과 관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부차적인 형상작업에 매달리다보니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것은 물론 영화를 제기일안에 만들어낼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창작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시되면 진지하게 연구하고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집행대책을 세워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하심으로써 창작가, 예술인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자그마한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로 고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신데 이어 예술영화촬영소의 연구실을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이 되게 훌륭히 꾸리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술영화촬영소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건설모형도를 보아 주시면서 예술영화촬영소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잘 꾸려야 하겠다고, 예술영화촬영소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은 문화기관들가운데서 제일먼저 꾸리는것만큼 본보기가 되도록 잘하여야 한다고 교시를 주시고 연구실을 꾸릴 위치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덕성을 따라배우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것만큼 연구실을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이 제일먼저 훌륭하게 꾸려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건설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몸소 예술영화촬영소에 나오시여 테프를 끊으시여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개관을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정중하게 꾸려진 예술영화촬영소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은 영화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 거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게 되었으며 문학예술부문에서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한 우리 당사상교양사업의 경험이 창조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창작실천을 통하여 사상개조를 다그치도록 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으시였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혁명적실천과정을 통하여 사상개조를 하는것은 문학예술부문에서 창작가, 예술인들의 직업상특성과 문학예술혁명의 요구로부터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참다운 혁명가로 되자면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학예술창작과정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사상적으로 단련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7(1968)년 4월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의 창작가들에게 동무들은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창작하는 과정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정치적으로 한계단 더 높이 올라서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며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창작실천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하고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실천을 통하여 단련된 혁명적인 예술인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문학예술부문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 그처럼 짧은 기간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되고 당사상사업의 경험도 창조되어 우리 당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